

10월에 드리는 편지

T-Land 에서 김 갈렙, 박 아리아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
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20

아멘!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께 10월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곳 T-Land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 이브라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 이브라힘

이브라힘은 30대의 이란 청년입니다. 이란에서 이슬람과 철학, 종교를 공부하며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강한 무슬림 배경을 가진 친구입니다.

터키에 온 후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예배가운데 이브라힘을 초청했는데 흔쾌히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
란 출신의 한 청년이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 모로코까지 선교를 다녀온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이후 이브라힘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믿고 있니?”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크리스천이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너무 놀랄 거야. 예수님께 서 내 꿈에 나타나 나를 만나 주셨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야.”

서너 번의 만남을 가졌을 뿐인데 이브라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는 남편 갈렙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저희는 그의 휴대폰에 성경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이브라힘은 거의 매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갈렙이 이브라힘과 함께 요한복음을 읽으며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아직 서로 언어가 충분히 통하지 않아 통역 앱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브라힘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브라힘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이 심기게 하시며, 친히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시간

지난 주말 이브라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란으로 부터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그 친구는 이브라힘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브라힘은 너무나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나도야!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 너무 기뻐!”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혼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시간과 장소 가운데 저희를 증인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이브라힘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저희 부부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과 모든 작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부족한 언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저희의 부족한 언어가 아니라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브라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이민국 인터뷰와 행정 절차를 위해

집 주소 등록을 위해 필요한 이민국 인터뷰 일정이 속히 잡히고, 전기와 휴대폰, 인터넷 등 남은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중국인 친구 리사를 위해

리사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그곳에 잘 정착하여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외로운 순간에도 위로 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이 고백을 붙들고 10월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다음 소식을 전할 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서 사랑을 전하며,

T-Land에서
갈렘 & 아리아 드림